

(10) 지식정보

2013년 멕시코의 지식정보시장은 인터넷접근시장과 전문서적의 디지털 부문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전년대비 17.9% 성장한 95억 9,700만 달러의 시장 규모를 기록하였다.

전문서적과 산업잡지의 디지털 부문의 성장세가 대단히 높았는데 이는 경제가 회복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진입 단계에서 기업의 정보와 현황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터넷접근시장의 모바일 부문 역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스마트폰이 낮은 가격으로 출시된 것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멕시코의 지식정보시장은 5년간 연평균 8.4%의 상승세를 유지하여 2018년까지 143억 6,8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표 5-17] 멕시코 지식정보시장 규모 및 전망, 2009-2018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3-18 CAGR
비즈니스정보	723	710	724	744	759	776	790	807	825	844	2.1
디렉토리 광고	330	322	312	318	319	319	319	319	317	314	△0.3
디지털	13	15	18	21	23	26	30	33	37	42	12.6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3-18 CAGR
인쇄	316	307	294	297	296	293	290	285	280	273	△1.6
전시회	238	246	263	272	286	298	311	325	340	357	4.5
전문서적	178	189	196	202	209	216	223	231	240	250	3.6
디지털	0	4	8	12	16	21	27	34	41	50	25.3
인쇄	178	185	188	190	193	195	196	198	199	200	0.7
산업잡지	83	94	110	123	135	144	152	158	163	167	4.4
광고	72	82	100	114	127	136	145	151	156	161	5
- 디지털	-	2	5	13	17	21	25	29	34	40	18.5
- 인쇄	72	80	94	100	110	115	120	122	122	122	2.1
구독	11	11	10	9	8	8	7	7	6	6	△6.5
- 디지털	-	-	-	-	-	-	-	-	-	1	-
- 지면	11	11	10	9	8	8	7	6	6	5	△8.3
인터넷접근	3,219	4,620	5,356	6,483	7,889	8,888	9,743	10,610	11,486	12,436	9.5
모바일	1,166	1,893	2,176	2,828	3,730	4,365	5,062	5,810	6,593	7,464	14.9
고정브로드밴드	2,053	2,727	3,180	3,655	4,159	4,523	4,681	4,800	4,893	4,972	3.6
합계	4,771	6,181	6,961	8,142	9,597	10,641	11,538	12,450	13,371	14,368	8.4

출처 : PwC(2014)

[그림 5-49] 멕시코 지식정보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09-2018



출처 : PwC(2014)

2013년 인터넷접근시장은 82.2%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2009년에 이어 지식정보시장에서 최고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유·무선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인터넷접근시장은 더욱 성장하여 2018년에는 86.6%의 점유율로 전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 외의 시장들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비즈니스 정보시장의 점유율은 2009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디렉토리 광고시장과 전시회시장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201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50] 멕시코 지식정보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09 vs. 2013 vs. 2018



출처 : PwC(2014)

가. 인터넷접근

2013년 멕시코의 인터넷접근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21.7% 상승한 78억 8,9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2013년 멕시코정부는 새롭게 방송통신규제기구 연방이동통신협회(Instituto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 IFT)의 설립을 허가했다. IFT는 업체의 자산매각과 사업 허가권의 취소, 네트워크와 인프라 공유 등을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자국의 인터넷 발전을 저해하는 인터넷과 TV 방송시장의 독점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멕시코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통한 속도의 개선과 가격의 효율성을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의 인터넷접근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9.5%의 성장률로 2018년까지 124억 3,6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1절

1. 미국

2. 캐나다

제2절

1. 브라질

2. 멕시코

3. 아르헨티나

4. 칠레

[그림 5-51] 멕시코 인터넷접근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09-2018



출처 : PwC(2014)

나. 전문정보¹²³⁾

2013년 멕시코의 전문정보시장은 전년대비 3.0%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17억 800만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였다.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이 인접해 있고 접근성이 매우 좋아 미국기업에게 매력적인 시장이다. 게다가 임금이 낮은 편이어서 복미와 중남미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생산기지 건설을 위한 최적의 위치이기도 하다. 이처럼 미국과 중남미를 연결하는 교두보로서 지리적 이점을 가진 멕시코의 전문정보시장은 2018년까지 19억 3,200만 달러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23) 전문정보시장은 인터넷접근을 제외한 지식정보시장(비즈니스 정보, 디렉토리 광고, 전문서적, 산업잡지, 전시회)을 의미함

제1절

1. 미국

2. 캐나다

제2절

1. 브라질

2. 멕시코

3. 아르헨티나

4. 칠레

[그림 5-52] 멕시코 전문정보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09-2018



출처 : PwC(2014)